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4-학인-00011 학생의 학습권 등 인권침해
신 청 인 ○○○(피해자의 父)
피 해 자 ○○○(○○○○초등학교 6학년 ○반 학생)
피 신 청 인 ○○○(○○○○초등학교 6학년 ○반 담임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으로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는 교원이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고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다른 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초등학교장에게,

가. 피신청인이 학급 학생들에게 피해자를 따돌리도록(학교폭력) 강요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교원이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고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일기장 검사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신청인의 신청 사항 중 학습권 침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4. 12. 11.(목)

나. 신청인 : ○○○(피해자의 父)

다. 피해자 : ○○○(○○○○초등학교 6학년 ○반 학생)

라. 피신청인 : ○○○(○○○○초등학교 6학년 ○반 담임교사)

마. 구제신청요지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피신청인의 수업진행 방식 등에 대한 불평불만을 친구들에게 말한 사실을 인지한 후, 2014. 11. 24.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학생 4명을 개별면담 하면서 피해자가 위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자술토록 하고, 위 학급 학생들에게 ‘○○○이 나쁜 아이니까 놀지 마라’는 식의 지도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반성할 시간을 갖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둠에서 제외시켜 홀로 교실 뒤편에 앉게 하고, 이틀간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따돌림을 당하도록 조장하였다.

2.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신청인 및 피해자

위 신청요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2014. 12. 19.(금) 조사관과 문답 중에 문답을 거부(같은 달 30. ○○○ 조사관과 전화통화에서 다시 한 번 문답에 응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음)하여, 같은 달 15.(월)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를 피신청인의 주장으로 봄.

2014. 11. 21.(금) 9:15경, 수업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고, 수업시간

에 ‘조용히 하라’는 지도에 학생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학급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였다.

2014. 11. 24.(월) 10:40경 한 학생이 말해 주어서, 요즘 학급 분위기가 이상해진 원인을 알게 되었고, 학급 학생의 일기에서도 ‘○○이가 선생님 뒷담화를 여러 명에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기라고 까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4. 11. 24.(월) 14:30경, 피해자에게 뒷담화를 들은 학생들(○○○, ○○○, ○○○, ○○○)을 복지실에 각 개인별로 불러, “뒷담화를 듣고 있을 때, 너희도 잘못 되었다. 틀리면 틀렸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들은 말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도록 지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 놀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014. 11. 26.(수) 9:10경, 학급 학생들에게 이야기책인 ‘소녀들의 심리학’을 예화 자료로 소개하며, ‘6학년 정도의 시기에 아이들은 또래집단을 형성하며,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일지라도 같이 무리지어 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시켜 주기 위해 지도하였다.

2014. 12. 1.(월) 9:20경, 교사 뒷담화와 수업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간에 상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여, 학급 학생 전원에게 ‘교사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것과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지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라”고 지도하였다.

2014. 12. 1.(월) 13:30경, 피해자가 피신청인에게 혼난 이후, 평소

보다 더 활발하게 친구들과 놀면서 반성하지 않기에, 모둠에서 자리를 옮기게 하여 “좀 차분히 혼자 생각하고 반성을 하라”고 지도하였다.

다. 6학년 ○반 학생들(28명, 1, 2차 무기명 설문조사)

※ 학생들이 설문지에 기입한 내용과 표현을 가급적이면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기재함.

1) 1차 설문조사

- 뭔가 기분이 묘하다. 혼자 자리를 쓰고, 가운데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 친한 친구와 떨어져 있어 왠지 안쓰럽다.

- 소외되는 것 같다. 선생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난 후, 혼자 있는걸 보면 모둠활동하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지도 못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 이야기거리도 없어지면서 자연스레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을 받을 것 같다.

- ○○이에게 반성할 시간을 주고, 혼내시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는 ○○이에게 자중할 시간을 주어서 따로 앉혀셨다고 하셨지만, 제3자인 나로서는 살짝 왕따를 만드는 것 같아 보인다. 말도 하지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친다.

- 선생님을 까서 뒷자리로 배치됐는데, 그 이유로 그렇게 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이만 뒷자리로 배치된 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똑같은 친구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만 뒤에 앉아야 하며, 똑같은 친구들과 이야기도 못 나누고, 놀지도 못하고 왜 소외감을 느껴야 하

며, 웃을 수도 없는지 잘 모르겠다.

- 선생님이 ○○이 보고 소리지르며 화를 냈고, 뒷자리로 따로 보내버렸으며, 그때 '○○이나 △△이는 내 앞에 앉게 할 마음이라도 있었는데, 너는 그럴 마음도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차별하였다.

- ○○이랑 같이 논 애들을 불러서 '그렇게 히히덕 거리고 싶었냐', '○○이랑 똑같은 애만 ○○이랑 놀아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선생님 안 볼 때에만 놀았다.

-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못 놀게 하는 것은 조금 심했다. 모둠 활동도 못하고 뒤편시간에 혼자서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혼자서 욕한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여자아이들은 선생님을 욕했는데 ○○이한테만 그래서 싫었다.

- 선생님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선생님께서는 가식적이라며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비난을 하셨다.

- 이 일은 ○○○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한 명에게 너무 큰 잘못의 대우를 주었고, 친구들과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노는 것, 심지어 웃는 것까지 막은 것이 어찌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이가 왕따 같은 기분이 들고, 혼자 되게 쓸쓸하고 울고 싶을 꺼 같다. 한번만 용서하고 친구들과 노는데 끼었으면 좋겠다. ○○이가 너무 속상할 꺼 같다.

-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가 생각할 시간을 더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 안쓰럽기도 하고 뭐하러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당

연하다고 생각한다.

- 반성을 하기 위해 뒷자리 배치를 한 것 같다.

2) 2차 설문조사

- 선생님께서 ○○가(이) 눈빛이 달라졌다면서 그게 ○○이 때문인 것 같으며 2교시 쯤 소녀들의 심리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4교시부터 6교시까지 ○○이랑 친한 친구들 불러가서 종이를 주시면서 ○○이가 말한 거 다 종이에 쓰라고 했다.

- 1교시부터 선생님이 “야! ○○○! 너는 3일 시간을 주었을 때 나한테 왔어야 했어”라며 혼냈고, 2교시 때 ○○이가 울었을 때 “넌 왜 그런 생쇼를 하니?”라며 2교시까지 혼이 났다.

- 3교시 체육시간에 ○○이에게 말을 걸었던 아이들(여자)은 앞으로 불러나가, “자중해야 하는데 말을 걸었다”고 혼을 냈다. 그 뒤 ○○이는 모둠에서 벗어나 뒤에 혼자 앉게 되었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가 없게 되었다.

- 애들 말에 의하면, 선생님께서 불러간 애들에게 ○○이가 한 선생님의 뒷담화를 다 쓰라고 했고, ○○이와 놀지 말라고 하였다고 했다.

- 1교시부터 난데 없이 잘 앉으라고 하고 예민해지시면서 ○○이를 혼냈다. 그 날은 계속 혼났다.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화장실만 갔다오라고 하셨다. ○○이는 계속 선생님께 압박감을 느끼면서 울었고, 울자 선생님은 “넌 울 자격도 없다”고 하였다. 우리 반 여자애들은 달래주었고, 선생님은 또 다시 ○○이에게 말

을 건 애들을 불러서 “말을 걸지 말고 놀지도 말라”고 하였다.

- 체육을 갔다 온 후에 선생님은 또 다시 ○○이에게 왜 웃냐며
억박질렀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올린다고 협박하셨다. 마지막에는
○○이에게 남으라고 하셨고 ○반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다.

- ○○이에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뒷담했다는 것을 들켜서 울면서
모든 애들 앞에서 이야기 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애
들한테 “너네는 선생님한테 사과했다고 끝난게 아니다”라고 하셨다.
그 때 ○○이도 사과하려 나갔는데 선생님이 “넌 가라”고 하셨다.

- 그 후로 갑자기 ○○이한테 신경질을 내며 뒤에서 혼자 앉으라
고 하면서, 하나 덧붙여서 “○○이나 △△이는 그래도 이빠서 앞에라
도 앉혔지, 너는 보기도 싫다”며 ○○이에게 심한 말을 했다.

- 선생님께서 남의 뒷담 까는 애랑은 같이 안 있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고, 일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이
를 혼내셨다. 그리고 아마도 2교시 쉬는 시간에 ○○이가 죄송하다고
하였다.

- 점심시간에 ○○이랑 놀았는데 5교시 때 선생님이 “○○○이랑
히히덕 거린 사람 나와”이러더니, ○○○과 △△△를 뺀 나머지 애들
은 앞으로 나가서 혼냈다.

- “○○하고 △△이라는 남자애들은 앞에다가 책상을 놀 마음이
있는데 넌 그럴 마음도 없다”면서 뒤로 혼자 떨어져 있게 했고, ○○
이가 사과했더니 “그게 사과냐” 하였다.

- 계속 ○○이 혼자 놀게 하려고 하고, 그냥 보면 놀지 말라면서
따시키는 것 같았다.

- 선생님이 “○○○ 개는 나쁜 애이며 놀지말지는 니가 선택하는데 나중에 또 그런 애가 나타나면 그런 애랑은 놀지 말라”고 하였다. 그 일이 있고 선생님이 ○○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뒷자리로 보냈고, ○○이에 대해 막말을 하였다. 그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이와 난 울었다.

- 그날 애들끼리 ○○이와 놀았고, 우리반 선생님은 ○○이와 논 아이들을 혼냈고 우리보고 “니네 중에 ○○○과 똑같은 애들만 놀아라”라고 말했고, 우리보고 선생님 보고 사과하라고 했다. 그 때 ○○이도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를 췌려보면서 “너는 얹혀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 선생님께서 수업방식을 좀... 아이들이 다들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시거나, 그 때 들어서 짜증을 많이 내셔서 애들도 선생님한테 짜증이 나 있던 상태였다.

- 말이 혼낸 거지 선생님이란 권력으로 애한테 화를 내고 있었다. 그렇게 1교시가 끝나고 ○○이가 울길래 화장실에서 달래주는데 안에 선생님이 계셨다. 그래서 애들이 ○○이 달래는 걸 보고는, 2교시 쉬는 시간에는 애들한테 “○○이 하고 말도 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같이 놀지 말라”고 했다.

- 선생님께서는 자중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애들한테는(○○이 자리를 모듬에서 띄워서 <그림> 이런 식으로 따로 앉혀 놓고는) “우리반 남자애들이 말 안들어도 앞에 놓는데 너는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뒤로 가라”며 동 떨어져서 앉혀놓았다.

- 5교시에 선생님이 애들한테 갑자기 화내더니, ○○이하고 이야기

한 여자애들 다 나오라고 했다. 나도 해서 나갔다. 선생님이 우리를 엄청 췌려보더니 “너도 ○○○이랑 같이 뒷담화 했냐”며, ○○이한테 비꼬면서 “너는 동지 생겨서 좋겠다”라고 그랬다.

- 우리한테도 자기 뒷담갔냐고 물어봐서 했다고 하니까, 엄청 췌려 보면서 자기가 ‘우리들한테 주는 생활기록부 말고도 따로 세밀하게 적는 생활기록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중학교 올라갈 때도 남고 대학교 갈 때나 취직할 때도 남는 건데 너희 거기에 쓸까?’라는 식으로 계속 비꼬면서 너의 부모님들도 부를 꺼라며 거의 협박했다.

- 선생님이 A4용지 줄테니까 너네들이 잘못된거 다 쓰라면서 다시는 ○○이랑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쓰고, 싸인까지 하라고 했다. 덧붙여서, 오늘 학교 끝나기 전까지 자기한테 사과 안하면 생활기록부에 쓸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고, 우리는 다 죄송하다고 했다.

- ○○이도 죄송하다고 했더니 넌 나한테 사과해도 내 맘은 절대 풀리지 않을 거라며 받아주지도 않았다.

- 선생님이 뒷담간 사람 나오라고 해서 우리반 여자 아이들은 2명 빼고 나갔다(남자×). ○○이가 심했다고 생각이 든다.

- 점심먹고인가? 5교시가 되자 ○○이한테 말 걸었던 아이들 다 나오라고 하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여기서 다 말하라고 하여서 애들이 다 울면서 말해서 선생님도 울었다. 그리고 ○○이가 선생님한테 울면서 죄송하다고 말을 했는데 선생님은 안 받아 주셔서 ○○이는 자리로 돌아갔다.

- 점심시간에 ○○이가 우리랑 놀고 떠드니까 선생님이 ○○이 보고 “가식 떨지 말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모둠에서 떨어뜨려 놓

고 우리 보고 ○○이랑 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 선생님께서 ○○이가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혼내시고 반성할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 1교시에 혼나서는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사과하러 오지도 않고 애들과 놀았다. 2교시 쉬는 시간에는 ○○이가 ○○이가 아파서 보건실 가는 것을 대신 말해주었다며 혼난 것 같고, 3교시 체육을 마치고 4교시 영어를 한 뒤 5교시에는 그날 ○○이에게 말을 걸어주고 같이 놀았던 사람을 불러내었고, ○○이가 그 다음 뒤에 혼자 앉았던 것 같습니다. 6교시에는 선생님 뒷담화 했던 것을 말하고 사과하도록 하였고 그렇게 이 하루는 지났다.

- 그리고 ○○이 혼자 구석자리에 배치해 놓고 ○○이와 친한 아이들이 ○○이와 이야기 하면 그 아이한테 화를 냈다. 나는 ○○이가 울어서 “○○아 울지마”라고 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한테 말 한번이라도 한 사람 다 나오라고 해서 우리들 중, 갑자기 선생님 뒷담화를 깬 것들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고 우리는 다 같이 사과드렸다. 몇몇은 울면서 사과 드렸다.

- ○○○과 몇몇 친구들이 담임선생님 뒷담화를 한 것이 확인되고,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인 것을 알고 선생님께서 화나셔서 ○○○만 뒤에 자리로 보내셨다.

- 선생님께서 ○○이가 뒷담을 했다고 혼내셨다. 선생님께서 ○○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 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체육시간에 ○○이와 말을 섞었다고 혼냈다.(12월 1일) ○○이를 혼자 앉혔다.

- 그 애 혼자만 뒷담화를 깬 것이 아니라, 몇몇 친구들과 짝했는데,

그 중 한명도 혼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다. 여럿이 같이 혼나야 할 무게를 혼자서 버티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4. 인정사실

신청인의 구제신청서, 피신청인의 경위서, 위 학교 6학년 ○반 학생들의 설문지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4. 11. 24.(월) 10:40경 피신청인은, 학급 학생들의 일기검사를 하다가, 어떤 학생의 일기장을 보고 피해자가 몇몇 학생들에게 피신청인의 수업진행 방법 등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이하 ‘뒷담화’라 함)한 것을 알게 되었다.

나. 2014. 11. 24.(월) 14:30경 피신청인은 위 학교 복지실에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 ○○○, ○○○, ○○○)을 개별 면담하였고, 위 학생들에게 A4용지 1장을 나누어 주며, 피해자가 한 뒷담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가 한 뒷담화의 내용은, ① 선생님이 수업방식을 고쳤으면 좋겠다, ②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다, ③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④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를 만들어서 위반 사항이 있는 아이들을 손들고 서 있게 시키는데, 이런 거를 왜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점심시간도 빼앗는 게 싫다, ⑤ 작년에 담임을 했던 반의 학생들과 우리들을 비교하는데, 사람마다 학년마다 다

다른데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⑥ 급식검사하면서 우리들에게 급식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남기면서 우리들에게 그러는 것은 좀 이상하다, ⑦ 매일 우리들에게 노트 필기를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공부에 도움 되지 않는 것 같다, ⑧ OOO만 예뻐하는 것 같은데 짜증스럽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라. 2014. 11. 26.(수) 9:10경 피신청인은, 위 학급 학생들에게 <소년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예로 들어, ‘6학년 정도 시기의 아이들은 좋지 않은 일을 무리지어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도하였고, 위 학생들에게 “뒷담화를 까는 애랑 같이 놀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야기한 ‘뒷담화를 까는 애’는 피해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학생들은 알고 있었다.

마. 2014. 12. 1.(월) 9:20경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한 뒷담화 때문에 수업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뒷담화와 학습분위기 저해 및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바. 2014. 12. 1.(월) 10:40경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학급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반성하라”고 이야기하였다.

사. 2014. 12. 1.(월) 13:30경 피신청인은, 자신이 지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친구들과 놀이 활동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를 모둠에서 제외시켜 교실 뒤편에 홀로 앉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좀 차분히 혼자 생각하고 반성을 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던 학생들을 불러, ‘피해자에게 말을 걸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위 학생

들을 혼냈다.

아. 2014. 12. 1.(월) 14:10경 피신청인은, 위 학급 학생 전원에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반성하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써라”고 하였다.

자. 2014. 12. 2.(화) 10:35경, 피해자의 母가 위 학교에 와서 피신청인에게 피해자의 병원진료를 이유로 조퇴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하여 피해자는 조퇴하였다.

차. 위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과하지 않았고, 2014. 12. 3.(수)부터 2015. 2. 11.(수)까지 피해자는 등교하지 않았으며(2014. 12. 27. ~ 2015. 2. 1.은 겨울방학이었음), 같은 달 12.(목)에 열린 위 학교 졸업식에만 참석하였다.

5. 판단

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제1항은, ‘아동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상처를 남기므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증진하여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 따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권리에는 ① 학생이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차별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② 그러한 행위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학생의 인권’을 확인하고 있고, 학교생활규정 제42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는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는 등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행동을 한 때에는, 우선 상담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선택할 때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적 효과가 높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학생이 상처를 입고 학교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 나.항부터 아.항까지의 사실 중,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원칙과 방법에 따라 피해자와 학급학생들을 훈육하거나 훈계한 적절한 지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과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방법, 즉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적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훈육·훈계를 하였다기보다는, 피신청인이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피해자와 놀지 말 것’을 지도·지시하여 피해자를 따돌리도록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적절한 지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인다. 즉,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신청인의 ‘뒷담화’를 하

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들과 놀거나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런 행위는 담임교사의 직접적인 지도·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피신청인이 피해자와 놀거나 이야기를 한 학생들을 혼냄으로써, 단순히 훈계 차원이 아닌 피해자가 따돌림을 당하는 벌을 받게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학생에 의한 따돌림의 경우보다 그 피해범위와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피신청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거나 놀이를 같이 한 학생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혼내고, 위 학생들에게 피해자와 놀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따돌림(학교폭력)에 동참할 것을 학생들에게 담임교사가 강요한 행위로 보이므로, 위 학급 학생들 모두 학교폭력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위 학생들이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담임교사에 의해 학교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포함한 위 학급의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책을 마련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는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학생이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제16조는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조의 '학습에 관한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인정사실 다.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신청인의 '뒷담화'를 한 내용은, 수업을 받는 학생이 교사의 수업 방식, 지도 방식 등에 대하여 제기한 불만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교사는 우선 그 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의 내용을 위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자신의 뒷담화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학생들 앞에서 피신청인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생활의 자유'에는, '사적 사항의 공개는 개인의 자율에 일임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그 개인적 사항을 무단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한 얘기를 학급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는 2002헌가1결정에서,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내심의 자유인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하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고 양심에 따라 삶을 형성할 자유로서, ① 양심을 표명하거나 또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양심표명의 자유), ②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③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의 내용이 자신의 뒷담화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학생들 앞에서 피신청인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할 것인지 여부(사과 혹은 반성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강요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인정사실 사.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피해자를 분리하여 홀로 교실 뒤에 앉아서 수업을 받도록 하였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관련 법령과 학교생활 규정 등에 따른 교사의 지도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피신청인이 공개적으로 위 학급 학생들에게 ‘피해자와 놀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와 어울렸던 학생들을 혼냈던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소외감이나 위화감, 불안감, 모

떨감 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홀로 교실 뒤에 앉아서 수업을 받은 것이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인지 살펴보면, 당시 위 학급의 좌석은, 학생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과 참여 등을 요구하는 모둠 형태로 배치되었지만, 실제 수업은 모둠 수업이 아닌 일반적인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의 좌석만 교실 뒤쪽으로 배치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일기장 검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기검사는, 인격적 존재로서 아동이 사생활의 내용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검사·평가 받을 것을 전제로 일기를 작성함으로써, 개인에 대해 그 고유한 양심세계를 보장하고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다양한 윤리적 가치관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일기장 검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다른 방법의 강구가 가능하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을 개선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국가

인권위원회 2005. 3. 25.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고 일기장 검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인정사실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위 학급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일기장 검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한 바와 같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바, 초등학생들에 대한 일기 쓰기 교육은 위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좀 더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결과로 나타난 학생들에 대한 ‘지도 과정’의 방식도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다른 방법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인권감수성을 가지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을 포함한 교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대책 등을 마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2014. 11. 26.(수), 같은 해 12. 1.(월)경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신청인의 '뒷담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들과 놀거나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거나 놀이를 같이 한 학생들을 불러 혼내고 위 학생들을 피해자와 놀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위 학급 학생들에게 피해자를 따돌리는 행위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위 학생들 역시 정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므로, 담임교사에 의해 학교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책을 마련하여, 해당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5. 2. 12.(목) 위 학생들이 위 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관련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치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양심의 자유 등 침해

피해자가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의 내용을 위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을 하도록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양심

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2014. 12. 1.(월) 13:10경, 수업에서 피해자를 분리하여 홀로 교실 뒤에 앉아서 수업을 받도록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때 피해자가 교실 뒤에 혼자 앉아 수업을 받은 것은,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일기장 검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기장 검사로부터 시작되어 이와 관련하여 학생을 지도하다가 벌어진 것으로, 일기장 검사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점 즉, 일기장 검사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2. 13.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송 기 춘 (서명)

[별지 :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

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